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몸으로 변해

천국의 정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덴동산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또한 천국이 되는 시온이 바로 이긴자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이긴고로 완성의 신인고로 에덴동산이요, 시온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늘 위에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있으니 참말로 미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신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요 이제그대로 완성의 이긴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마음이 시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천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그대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마음이 에덴동산이라고 성경에 또렷하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회복한다는 말은 이제그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설하게 되어 있고 잃어버린 천국이 되는 에덴동산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회복하려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하늘의 사람, 즉 의인들이 있어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의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이긴신 하나님이 이제그대로 사람을 점령해야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경 상에서도 극락세계가 마음 속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라고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치광이 인간들이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늘나라가 저 하늘꼭대기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저승 간다.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며, 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신의 정의

신이 영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그대로 물질이요, 물질 자체가 신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 자체가 신이요, 영이요, 피 자체가 신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상이나 불경 상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사람 자체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서 하나님의 신이 마귀 속에 갇혀 있는 상태가 사람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도 마귀의 신이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신인고로 사람의 핏속에 마귀의 피도 있고 하나님의 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제그대로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이와 같이 알고 있지마는 사실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논했지만 이 세상 만물이 바로 신이요, 이 세상 만물이 신일뿐만이 아니라 공기 자체도 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호흡을 할 때 그 호흡하는 사람이 공기를 내뿜으면 그 내뿜는 공기가 그 사람의 영이 되어가지고 공기 속에 잠입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 영들이 현재 산 사람 속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고로 그 공기를 마시면 바로 마실 적마다 그 죽은 사람의 영을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과학자들도 신학박



구세주 조희성님

사들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제그대로 공기 자체가 신이요, 영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도 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산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고 하나님의 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 산소의 결합데기의 물질은 바로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히는 물질이 바로 산화 물질이요, 산화 물질이 바로 산소라고 이 세상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결합데기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그대로 산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곧 생명

사람도 그 겹테기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주장하는 영이 마귀의 영이요, 이제 지배를 받는 영이 되는 생명의 영, 양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고로 하나님의 영이

마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다 이제그대로 마귀 영에 하나님의 신이 갇혀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 뿔나무에도 생명이 있고 사람도 생명이 있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성경적으로 뒤 어찌고, 어찌고 이제 그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체영이 마귀의 영인고로 마귀 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고로 마귀의 생각만 돌아오고 마귀식으로 생각이 움직이고 마귀식으로 알고 있는 고로 마귀의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제그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새로운 말씀을 한다는 말씀은, 이제 뉘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이긴신 하나님의 영이요, 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영인고로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인고로 마귀식으로 생각하고 아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인고로 성경에는 피가 생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생명이 피요, 피가 생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서 여러 군데에 “피가 생명이요, 생명이 피다”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9장 4절에도 어떤 말씀이 쓰여 있나면 바로 “생명이 되는 그 피를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면, 레위기서에는 구구절절마다 “생명이 되는 피를 고기를 먹지 말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죽어지리라.” 죽어진다는 건 바로 생명이 죽어진다는 말이요 저주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피는 못 먹게 성경에는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피를 고기를 먹지 말라.”고 구구절절 쓰여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피는 생명인고로 그러므로 생명이 하나님인고로 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성경적으로 뒤 어찌고, 어찌고 이제 그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체영이 마귀의 영인고로 마귀 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고로 마귀의 생각만 돌아오고 마귀식으로 생각이 움직이고 마귀식으로 알고 있는 고로 마귀의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종교의 정의

그러므로 영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는 영육 분리설을 완전히 이 사람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종교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그대로 영육 분리설을 말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요, 사이버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진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이 진짜 종교지, 참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무식한 소릴 하면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불심을 품어라.” 하는 말씀이 왜 경속에 기록이 되었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인고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품으면 바로 이제 피가 하나님의 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화하는 고로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영생체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나 불경적으로도 완전히 영생학을 논하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제그대로 “생각을 하는 대로 피가 변한다.”라고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하는 고로 “저거 생긴 대로 노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각쟁이처럼 생긴 사람 각쟁이 노릇을 하고 악하게 생긴 사람은 악하고 선하게 생긴 사람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평생시에 각쟁이 마음을 먹으면 바로 각쟁이 피로 반드시 변하는 고로 그 얼굴과 몸이 각쟁이 얼굴과 각쟁이 몸으로 변한다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음 먹는 대로 얼굴이 변하는 걸 봐서 그 얼굴과 몸이 바로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마음먹는 대로 몸과 얼굴이 변하는 고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바로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1992년 8월 7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우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3장 야곱의 하나님» (5) 고향을 앞에 두고도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야곱

(5) 고향을 앞에 두고도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야곱

야곱이 온 식구와 자기 가족을 이끌고 하란 땅을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에 오는 데 7일 걸렸습니다.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약 500킬로미터의 거리를 감안하면, 야곱의 가족이 하루에 70킬로미터 이상을 칠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행군하였다가 되는데 이것은 실로 쫓겨난 힘을 다해 도망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의 아반도주를 3일 만에 알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에 되는 길르앗 산까지 쫓아와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무리한 행군으로 너무 지쳐서 길르앗 산에 천막을 치고 이를째 쉬고 있었습니다.

151세의 라반은 목전에 야곱의 천막을 보고 가쁜 숨을 내몰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선불리 야곱에게 다가가다간 그의 딸들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늙은 라반은 자기 형제들로 하여금 땅을 보게 하고 물려오는 피로에 눈을 붙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



라반이 잃어버린 드라빔 신상을 찾기 위해 야곱의 천막을 살살이 뒤지다 Bartolomé Esteban Murillo 작

도록 삼가 조심하여야.”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때 야곱은 산 위에 천막을 치고 라반도 그 가까이에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따지지 말고 그를 해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받은 라반은 풀이 죽어 야곱에게 와서 불렀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쳐 오다니, 마치 자네는 내 딸을 포로처럼 데리고 온 셈이 아닌가. 내게 알리고 떠났더라면 나는 기쁘게 허락을 하고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자네 앞길을 축하하여 주었을 터인데, 그런데 자네는 귀여운 내 딸들과 외손자들에게 내가 작별의 인사도 못하게 하였으니 나는 자네를 지금 해할 수도 있는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좋고 싫고를 따지지 말라고 하셨네. 그래서 내가 참고 견

디는 걸세. 그런데 내 신(神: 드라빔)을 훔쳐 가는 까닭은 어떤 일인가?”

창세기 31장 32절

외삼촌의 신상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나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은 야곱의 천막을 살살이 뒤졌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라헬은 낫다 안장 밑에 신상(드라빔)을 감추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반에게 “노여워하지 마세요.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니 그 아버지가 지나쳐 가고 다른 곳을 두루 뒤졌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노하여 라반에게 책망하였습니다.

“네 물건들을 죄다 찾아보셨지만, 외삼촌의 물건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나의 친척과 외삼촌의 친척들이 있는데 흠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오 20년 동안 나는 외삼촌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에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새끼를 배어 낳을 때 한 마리라도 낙태하여 죽는 일이 없이 모두 다 순산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드라빔 신상. <https://www.biblicalarchaeology.org/daily/ancient-cultures/ancient-israel/canaanite-worship-figurine-tel-rehov/>

창세기 31장 41절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에 라반이 서로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하는 증거로 야곱이 세운 돌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취하여 에워 쌓았습니다.

“이 돌무더기 가운데 우뚝 선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니, 이제부터 너와 내가 이 기둥과 돌무더기를 넘어 상대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두고 서로 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위해 떡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라반은 딸과 손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받고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 헤브론에 계신 부모님을 한시바빠 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차상속을 받지 못한 형에서의 노여움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미치자, 두렵고 떨리는 지라 야곱 자신은 더이상 부모님을 만날 용기

가 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절: 아예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절: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이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아람 방언이니 증거의 무더기)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히브리 방언이니 증거의 무더기)이라 불렀으니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나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만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안젤라